

여름업는第一線

暖爐是唯一 한버스

별대불인 삼장서에서 잠시 쉬

인밖에 두만강을 건너 그대안에
있느니 주목의 봄 박 풍기자 (二)

旗洞)에 건너가 역시 맘주족의 토

조선의 경비도 무렵하지만 대

이인호가하는기념원연총선

이제는
절끼어
나는
사랑을

글 할 것 없어 아직도 불안과 초조

나라내이고 이겼다

이행이 투구나
혹기심에 끌려서

어간는법
마자드법
시리즈
전집
강사

우리가
못기 도전에
달배를
사

『한국』 4월 2000년 제

세상도 서현도 고금도 제

짜기【로열리히기】 때문에 담배 재

고풀아
얼서지 탓이겠지
○○

코-11로 견대는것이 도리켜 생



무산을 떠나 일해일출문(日月
警察副長·片山賢治署(京日、金
每新、高橋北日、土谷北日及吳
記者)으로 비사령부(討...司令部)
가잇는 삼상(三長)에 향하여다
도중에 요소요소 비롭어서 째
워진 경비신을 둘고 두만간을 엎메
끼고 구비구비 양의 창자가 튼 산
비탈길을 달려 세시간만에 목적
지인 삼상에 도달하였다. 삼릉(三
輪) 고등파장 편강서장(片岡審
長) 이하 다수의 영접을 바디로

는 第一線

暖爐불은 碌備隊의 唯一한 번

벌대불이 삼장서에서 잠시 쉬

인 뒤에 두만강을 건너 그 대안에 있는 만주국의 부락 홍기하(紅旗河)에 건너가 역시 만주족의 토벌대 사령부에 경의를 표하였다.

조선안의 경비도 무던하지만 대

안인 홍기하시가는 왈연 큰 선

쟁이나 당하듯이 몹시도 긴장되어 있었으나 걸까에 지나는 사람들은

굴 이라던가 점방에 앉은 사람들은

죽 할 것인가 아직도 불안과 초조한가 운데 임다는 표정을 여실히

나타내이고 있었다.

○○부대에 경의를 표한 우리

일행은 투구나 흑기심에 끌려서 맨주 담배를 사려고 점방에 들

어갔는데 눈치 빠른 강자 치를은 우리가 못 기도 전에 담배를 사

자는 줄 알고서『톨톤데』에 유라 1』하며 손을 내놓으는데 놀라지 안 풀 수 있었다.

세상이 소란하니 담배를 제

마을껏 배금이 될리 엇스라 만갑 짜기『로벌경기』 때문에 담배 재 고풀이 부대장 역시 조선 담배의 "마

각진 바이셨다.

대안에 이처럼 소란 정경을 보면서도 태연스럽게 자리 잡은 삼장시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을 수 있는지는 새삼스럽게 국경이 갈로노하여는 것을 놀끼게 한다.

x

다음 날 삼장을 떠난 일행은 농

사동을 거쳐 그곳에서 다시 멀리 백두산의 기슭에 있는 조선에서

는 제일 끊다는 부락인 삼수정(三水井)과 삼갈수(三川水) 두부

락을 향하여 고원지대를 올으

고도 올라 천후여섯 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두고 자동차를 얹지

로 모라

여기쯤에서는 두만강도 한 줄 기의 개울로 변하여 아밀린 각

도로 보아도 강물이라는 명칭을 부쳐 불기는 힘드렸다 차라리 강물이라기 보다는 옥어진 물사

이에 훌륭히 찬찬하지 않을이라 고나 복이 있는 것이 적당하다 너

무도 떠려서 복이 는 죄에는 놀라지 안 풀 수 있었으나 아프리 한 가지 더 저 보이는 개마고원(駕馬高原)의 옹대하고

여행 일행 어서 언(暖)을 만들어 떼(役)를 품려 나리기에 편리하도록 해노흔 정경을 나마다보면서 도는 목련진·고원에 제멋대로로 자

여러 가지의 출목이 무성하여 암연히 천연의 식물원(植物園)을 이루고 있는 학정을 보는 길 좌우에 울어진 원시림(原始林)의 장만을 보면서 천왕암(天王堂) 도암(道庵)을 거쳐 삼수령에

에 비석의 습격을 당한 바람
개천동(開拓洞)·신암(新巖)과
신개천동(新開拓洞) 등이 활동을
서 흙사 고전장을 험사하는
낌으로 담사를 계속하였다. 가
코마다『강회기』에는 청진이
나남에서 일상맞나는 경판
을 그곳 헌지에서 맛나는 뉴김
다

여러 가지의 출목이 무성하여 암연히 천연의 식물원(植物園)을 이루고 있는 학정을 또는 길 좌우에 옥어진 원시림(原始林)의 장만을 보면서 천왕당(天王堂) 흥아동(鶴石洞)을 거쳐 삼수령에 도달하였다.

해는 벌써 서산에 기우러지고 이야기는 김일성일당의 랑자한 흥포를 응집하자던 토벌대의 무용담으로 결속하여 젓섰다.

그리나 여기가 국경이요 또 백두산의 막다른 표록이라는 놋자자진 순간을 악가질수 없었던 김을 주는데는 누구나 갑자에 어느 철을 구별할것입지 사시 창동(四時洞)이니 묵이지라 경비대가 들어잇는 모양마다 날로 사이 온도를 무리니 농사동에서 벌써 청서령하십이도요 최고설이도라 한마로 그봉단상류인 삼삼수나 상수(上水)는 데무리를것 도어서 조선네제는 제일기후가 고르지 못한대로 자랑을 삼는 지방이니 이적은 끈허진곳에 경비대만 강물을 바라보고 날로 물을 벗삼아 물그렁이 서잇는것이 한갓 기이한 놋김을 갖게한다

비적의 습격을 카는 마법
개천동(開田洞)·장암(藏巖)과
신개천동(新開田洞)이지(地)
서 흙사 고전장을 향사하는
낌으로 답사를 계속하였다. 가
코마다『감회기』에는 청진이
나남에서 일상마다』 경판
을 그곳 헌지에서 막나는 『김
다

逃話도 가지 가지

降服勸告에 嘉飯할 明園의 珍答



이처럼 대단무상하게도 조선 안의 경비진을 둘다 침범한 그들과 토벌대인 조선경찰부대와의 조우전(遭遇戰)은 얼마만 한 정도로 전개되었던가? 그들이 그들의 전투력은 어느정도 의것인가 시험되었는가? 하느라서는 1000과 하루제휴하여 이만장으로 되돌려온에 대로 피신하고자 대로 피신하고나서는 경기파총을 두르며 맹렬한 포탄을 보내고 되어있지만 그들은 궁경에 빠져들 되어있지만 그들은 궁경에 빠져들 사를 건넜던 뒤에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그들이 되어있지만 그들은 궁경에 빠져들 한 해들을 강해하여 끝내 그대

로 신출귀몰하는 바 아니니 이 점은 절대로 소홀히 취급하고 말 것이 아니라고 토벌대 사령부측에서 말하기로 보아 단분들이 토벌대의 면활이 귀야 할 것을 짐작하게 된다. 이래 조선경찰대와 부대처 차위본대인 천호합해열한번 그중에 선수부대는 조선안에서 차운 것이라 한다. 당시 토벌대와 사령부에는 상당한 전투가 일어났던 모양이다.

— 그 중 — 면가지를 드리보면 다음과 가치로 유 — 모러스 — 한 전투 당시 숨어 있다 (가) 유후이십이 일월 열지 솜 못되어서 상삼수(上三水)의 강안을 경비중이던 모리부대(毛利部隊)는 야영터에 쓰러져 빠이 는 비적가를 봄(戎)이라고 하니 화장품 — 약간

— 그 곳 — 에는 비단이 사용하는데 물건으로 유동 기풀(遺棄品)이다. 다음과 가치로서 유 — 모러스 — 한 전투 당시 숨어 있다 (가) 유후이십이 일월 열지 솜 그 가운데는 암연(暗鹽) — 다 석회 — 엽연초(葉煙草) — 오백 "몬메" — 죽황(粟) — 고려 고 — 주가루 — 스족면경(거울) — 하나 화장품 — 약간

(仁人滿)에 이르는 산림(山林)에 철대에 식 람풀을 수송하는데 열마리의 말을 련대하여 네사람의 마부를 품과 마부까지 모조리 채 가지고

— 그 사람 — 수사마자 수십명의 비단이 병해 있다가 쪽차나와 말과식량

이끼어있었다. 하에게 감히 하게 되니 미망하기

경연대에 한하여 번복되고 이와가를 이 간간히 소개 만족하는 소치라 한다. 여기에 진기한 일화(逸話) 한 절을 소개하면 이리하다.

우리 일행이 차저가기 열마전에 만경도별대장 100씨가 김 일성 비단에 대하여 항복권고서(降服勸告書)를 써서 보내어 김 일성 일화의 이식부족함을 지적하여 깨우침과 함께 그 회답이 100씨에게 돌아온 것이다. 그 회답에 회답에 말하기를 「……네 가 권고한 대하여 답장을 쓰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로서 이 기회에 우리하고 저하는 바를 회답을 쓴다. …… 고이들이 우리를 비적이라 고부리고 …… 떠우리를 토벌한다. 고 하지만 결국은 너이들은 너희들은 우리에게는 우수한 무기운반대에 불과한 예술박자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괴롭에 는 10000견(見)이라 쓰고 발신자명의는 역시 검열성의 부하인 유파(吳伯父)으로 되어잇 선단한다.

— 이 말 — 은 만경을 모욕

하는 것이다. 알겠지?

조선에서는 상당수는 이야기나

한국경경비진에서는 그를 노획

기적이었는 흥언이 한화제끼리

가 되어 올가고 있다. 이것도

(사진=국립사박관 국립민족문화재관)

인대 만경부의 오직에 있는 조선인 부대장 100씨가 오백통에

경연대에 한하여 번복되고 이와가를 이 간간히 소개 만족하는 소치라 한다. 여기에 진기한 일화(逸話) 한 절을 소개하면 이리하다.

우리 일행이 차저가기 열마전에 만경도별대장 100씨가 김 일성 비단에 대하여 항복권고서(降服勸告書)를 써서 보내어 김 일성 일화의 이식부족함을 지적하여 깨우침과 함께 그 회답이 100씨에게 돌아온 것이다. 그 회답에 회답에 말하기를 「……네 가 권고한 대하여 답장을 쓰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로서 이 기회에 우리하고 저하는 바를 회답을 쓴다. …… 고이들이 우리를 비적이라 고부리고 …… 떠우리를 토벌한다. 고 하지만 결국은 너이들은 너희들은 우리에게는 우수한 무기운반대에 불과한 예술박자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괴롭에 는 10000견(見)이라 쓰고 발신자명의는 역시 검열성의 부하인 유파(吳伯父)으로 되어잇 선단한다.

— 이 말 — 은 만경을 모욕

하는 것이다. 알겠지?

조선에서는 상당수는 이야기나

한국경경비진에서는 그를 노획

기적이었는 흥언이 한화제끼리

가 되어 올가고 있다. 이것도

(사진=국립사박관 국립민족문화재관)

인대 만경부의 오직에 있는 조선인 부대장 100씨가 오백통에

경연대에 한하여 번복되고 이와가를 이 간간히 소개 만족하는 소치라 한다. 여기에 진기한 일화(逸話) 한 절을 소개하면 이리하다.

우리 일행이 차저가기 열마전에 만경도별대장 100씨가 김 일성 비단에 대하여 항복권고서(降服勸告書)를 써서 보내어 김 일성 일화의 이식부족함을 지적하여 깨우침과 함께 그 회답이 100씨에게 돌아온 것이다. 그 회답에 회답에 말하기를 「……네 가 권고한 대하여 답장을 쓰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로서 이 기회에 우리하고 저하는 바를 회답을 쓴다. …… 고이들이 우리를 비적이라 고부리고 …… 떠우리를 토벌한다. 고 하지만 결국은 너이들은 너희들은 우리에게는 우수한 무기운반대에 불과한 예술박자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괴롭에 는 10000견(見)이라 쓰고 발신자명의는 역시 검열성의 부하인 유파(吳伯父)으로 되어잇 선단한다.

— 이 말 — 은 만경을 모욕

하는 것이다. 알겠지?

조선에서는 상당수는 이야기나

한국경경비진에서는 그를 노획

기적이었는 흥언이 한화제끼리

가 되어 올가고 있다. 이것도

(사진=국립사박관 국립민족문화재관)

인대 만경부의 오직에 있는 조선인 부대장 100씨가 오백통에

경연대에 한하여 번복되고 이와가를 이 간간히 소개 만족하는 소치라 한다. 여기에 진기한 일화(逸話) 한 절을 소개하면 이리하다.

우리 일행이 차저가기 열마전에 만경도별대장 100씨가 김 일성 비단에 대하여 항복권고서(降服勸告書)를 써서 보내어 김 일성 일화의 이식부족함을 지적하여 깨우침과 함께 그 회답이 100씨에게 돌아온 것이다. 그 회답에 회답에 말하기를 「……네 가 권고한 대하여 답장을 쓰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로서 이 기회에 우리하고 저하는 바를 회답을 쓴다. …… 고이들이 우리를 비적이라 고부리고 …… 떠우리를 토벌한다. 고 하지만 결국은 너이들은 너희들은 우리에게는 우수한 무기운반대에 불과한 예술박자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괴롭에 는 10000견(見)이라 쓰고 발신자명의는 역시 검열성의 부하인 유파(吳伯父)으로 되어잇 선단한다.

— 이 말 — 은 만경을 모욕

하는 것이다. 알겠지?

조선에서는 상당수는 이야기나

한국경경비진에서는 그를 노획

기적이었는 흥언이 한화제끼리

가 되어 올가고 있다. 이것도

(사진=국립사박관 국립민족문화재관)

인대 만경부의 오직에 있는 조선인 부대장 100씨가 오백통에

경연대에 한하여 번복되고 이와가를 이 간간히 소개 만족하는 소치라 한다. 여기에 진기한 일화(逸話) 한 절을 소개하면 이리하다.

우리 일행이 차저가기 열마전에 만경도별대장 100씨가 김 일성 비단에 대하여 항복권고서(降服勸告書)를 써서 보내어 김 일성 일화의 이식부족함을 지적하여 깨우침과 함께 그 회답이 100씨에게 돌아온 것이다. 그 회답에 회답에 말하기를 「……네 가 권고한 대하여 답장을 쓰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로서 이 기회에 우리하고 저하는 바를 회답을 쓴다. …… 고이들이 우리를 비적이라 고부리고 …… 떠우리를 토벌한다. 고 하지만 결국은 너이들은 너희들은 우리에게는 우수한 무기운반대에 불과한 예술박자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괴롭에 는 10000견(見)이라 쓰고 발신자명의는 역시 검열성의 부하인 유파(吳伯父)으로 되어잇 선단한다.

— 이 말 — 은 만경을 모욕

하는 것이다. 알겠지?

조선에서는 상당수는 이야기나

한국경경비진에서는 그를 노획

기적이었는 흥언이 한화제끼리

가 되어 올가고 있다. 이것도

(사진=국립사박관 국립민족문화재관)

인대 만경부의 오직에 있는 조선인 부대장 100씨가 오백통에

경연대에 한하여 번복되고 이와가를 이 간간히 소개 만족하는 소치라 한다. 여기에 진기한 일화(逸話) 한 절을 소개하면 이리하다.

우리 일행이 차저가기 열마전에 만경도별대장 100씨가 김 일성 비단에 대하여 항복권고서(降服勸告書)를 써서 보내어 김 일성 일화의 이식부족함을 지적하여 깨우침과 함께 그 회답이 100씨에게 돌아온 것이다. 그 회답에 회답에 말하기를 「……네 가 권고한 대하여 답장을 쓰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로서 이 기회에 우리하고 저하는 바를 회답을 쓴다. …… 고이들이 우리를 비적이라 고부리고 …… 떠우리를 토벌한다. 고 하지만 결국은 너이들은 너희들은 우리에게는 우수한 무기운반대에 불과한 예술박자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괴롭에 는 10000견(見)이라 쓰고 발신자명의는 역시 검열성의 부하인 유파(吳伯父)으로 되어잇 선단한다.

— 이 말 — 은 만경을 모욕

하는 것이다. 알겠지?

조선에서는 상당수는 이야기나

한국경경비진에서는 그를 노획

기적이었는 흥언이 한화제끼리

가 되어 올가고 있다. 이것도

(사진=국립사박관 국립민족문화재관)

인대 만경부의 오직에 있는 조선인 부대장 100씨가 오백통에

경연대에 한하여 번복되고 이와가를 이 간간히 소개 만족하는 소치라 한다. 여기에 진기한 일화(逸話) 한 절을 소개하면 이리하다.

우리 일행이 차저가기 열마전에 만경도별대장 100씨가 김 일성 비단에 대하여 항복권고서(降服勸告書)를 써서 보내어 김 일성 일화의 이식부족함을 지적하여 깨우침과 함께 그 회답이 100씨에게 돌아온 것이다. 그 회답에 회답에 말하기를 「……네 가 권고한 대하여 답장을 쓰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로서 이 기회에 우리하고 저하는 바를 회답을 쓴다. …… 고이들이 우리를 비적이라 고부리고 …… 떠우리를 토벌한다. 고 하지만 결국은 너이들은 너희들은 우리에게는 우수한 무기운반대에 불과한 예술박자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괴롭에 는 10000견(見)이라 쓰고 발신자명의는 역시 검열성의 부하인 유파(吳伯父)으로 되어잇 선단한다.

— 이 말 — 은 만경을 모욕

하는 것이다. 알겠지?

조선에서는 상당수는 이야기나

한국경경비진에서는 그를 노획

기적이었는 흥언이 한화제끼리

가 되어 올가고 있다. 이것도

(사진=국립사박관 국립민족문화재관)

인대 만경부의 오직에 있는 조선인 부대장 100씨가 오백통에

경연대에 한하여 번복되고 이와가를 이 간간히 소개 만족하는 소치라 한다. 여기에 진기한 일화(逸話) 한 절을 소개하면 이리하다.

우리 일행이 차저가기 열마전에 만경도별대장 100씨가 김 일성 비단에 대하여 항복권고서(降服勸告書)를 써서 보내어 김 일성 일화의 이식부족함을 지적하여 깨우침과 함께 그 회답이 100씨에게 돌아온 것이다. 그 회답에 회답에 말하기를 「……네 가 권고한 대하여 답장을 쓰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로서 이 기회에 우리하고 저하는 바를 회답을 쓴다. …… 고이들이 우리를 비적이라 고부리고 …… 떠우리를 토벌한다. 고 하지만 결국은 너이들은 너희들은 우리에게는 우수한 무기운반대에 불과한 예술박자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괴롭에 는 10000견(見)이라 쓰고 발신자명의는 역시 검열성의 부하인 유파(吳伯父)으로 되어잇 선단한다.

— 이 말 — 은 만경을 모욕

하는 것이다. 알겠지?

조선에서는 상당수는 이야기나

한국경경비진에서는 그를 노획

기적이었는 흥언이 한화제끼리

가 되어 올가고 있다. 이것도

(사진=국립사박관 국립민족문화재관)

인대 만경부의 오직에 있는 조선인 부대장 100씨가 오백통에

경연대에 한하여 번복되고 이와가를 이 간간히 소개 만족하는 소치라 한다. 여기에 진기한 일화(逸話) 한 절을 소개하면 이리하다.

우리 일행이 차저가기 열마전에 만경도별대장 100씨가 김 일성 비단에 대하여 항복권고서(降服勸告書)를 써서 보내어 김 일성 일화의 이식부족함을 지적하여 깨우침과 함께 그 회답이 100씨에게 돌아온 것이다. 그 회답에 회답에 말하기를 「……네 가 권고한 대하여 답장을 쓰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로서 이 기회에 우리하고 저하는 바를 회답을 쓴다. …… 고이들이 우리를 비적이라 고부리고 …… 떠우리를 토벌한다. 고 하지만 결국은 너이들은 너희들은 우리에게는 우수한 무기운반대에 불과한 예술박자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괴롭에 는 10000견(見)이라 쓰고 발신자명의는 역시 검열성의 부하인 유파(吳伯父)으로 되어잇 선단한다.

— 이 말 — 은 만경을 모욕

하는 것이다. 알겠지?

조선에서는 상당수는 이야기나

한국경경비진에서는 그를 노획

기적이었는 흥언이 한화제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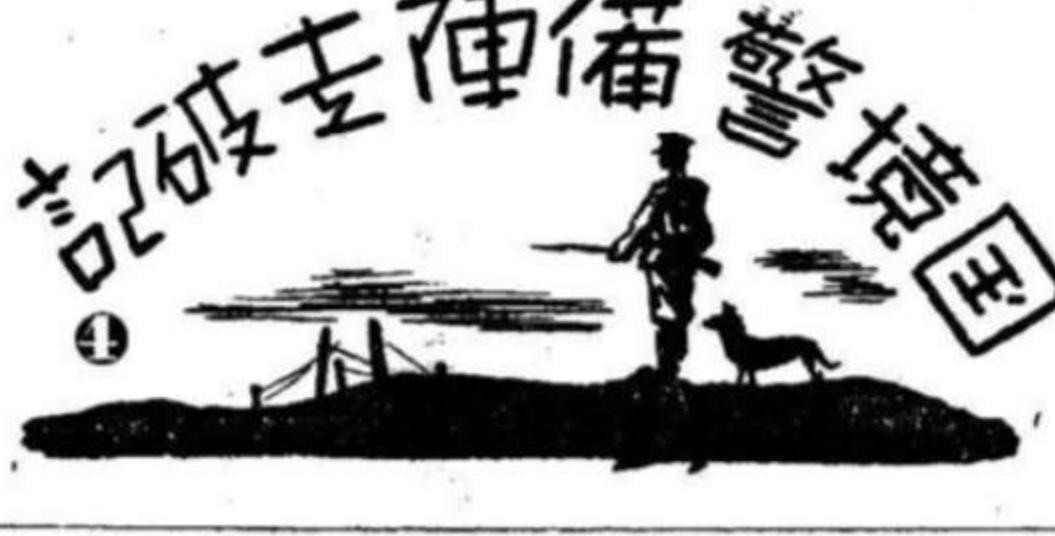
가 되

後方攬亂 ○已夢想

우수께끼가 든金日成의 正體

비적인 치안공작에 미치는
향이란 경솔하게 보아치울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된다 비

이요 그 중 김열성 일파는 제
사에 소속되고 김열성 자신이
육사장(第六師長)이란 직함
 가지고 있다



이요 그중 김일성 일파는 제
사에 소속되고 김일성 자신이
교사장(第六師長)이란 직함
가지고 있다.
그러면』 란 대개이
라한 이들이가?
그는 북쪽을 할남간산군(甲
山郡)에 두었다 하노 말도 이스
페어남출생이란 말이 더 근사
나 고하다. 금관서를 하살 전
의 청년으로 일찌기 소연에 배운
이 있다하나 그 진부는 가려
명도가 아득었다 그리고 그
파이를이 봄날이 아니라는
도 미들만한 자료가 없다
만 그가 오늘파 가치 비단의
명으로 루신하게 된 동기가
무엇지가 알찌기 기미년에
도에서 종알에 마저 너머 신
잇다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되었다



『전만주

『그박』

『그 박제』도 소속불
이 다수히 있느라 이들을 제
외하고 나라난것만을 합쳐도
어천명을 끌을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산재한 비석들이 꽁
비·토비·마적의 후로들이로
간단히 중국공산당의 지령이
나 "소련식의 후원과 지지아
래 움지진다고만 단정하기에
는 어려워졌다 업지아(이)이
리보았다 멸종기교한 존재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들이 만
주국의 후방교란을 쳐동하는
향에 밤마다 운동에 이용되고 있는
것임이 (증거수첩) 사실이라
하겠지 — (계속) — (사진)은 일자
동에 도착하였을 때(1938년)
이었고 하니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이래
김일성의 부하와 우군(友軍)
부대와 사이에

화전현(華川縣)과 안도
에 끼워 손동강(遼東江) 최
(崔賢匪團) 약사오백명
이어 외관현(北觀縣)에
군을 살마리고잇는 오
단(吳開起匪團)이 잇고
박거 도 소속불
명의 비단 수히 있는데 이들을 제
나타난것만을 한것도
을 끌을것으로 보이나
산재한 비단들이 꿩
비, 마적의 후예등으로
증국농산당의 지령이
련씨의 후예와 지지아
지진다고만 단정하기에
검온섬도 엄지안호니이
열종기교한 존재라 할
어단 다만 그들은 만
후방교란을 쳐들하는
만우동이 이용되고잇는
금강수업(金江水業) 사실이라
(계속) — (사진) 원사
착한행(과장비대)

匪團의 戰術變遷

“殘忍”에서 “宣傳”에로

國境線에 남은 唯一治安의 瘡



그들이 모두가 젊은 청년 중이었고 서 땅을 팔세도 부터 삼십세선 호이고 끼여잇는 여자들도 이십세전후의 독신들이라는데 부대내부에서의 남녀관계는 상당히 엄격하게 구별되고 있다하므로 대체로 군사훈련이 종래 보다는 매우 진보된것만 사실이다

일단이 어떠한 장마라도 겪을수잇도록 막목(柵木)에 초를 떠인 우장을 제가금 가지고잇고 잠자리는 천막(天幕)이래 한개는 사오십평을 수용할만한큰 것을 가초아 이다.

서예이도.따 천막의 줄임처에 보조(步哨)를세워 감시를 엄중

서 츠 봉 략에 대 하 여 서는 주 민 들
의 화 짐 을 사 기 애 몹 시 노 력 을 하
고 잇 다 는 텨 종 태 처 럼 남 자 에
대 한 자 이 한 행 동 이 적 어 젓 고 또
습 性 부 략 에 들어 가 악 행 을 하 되
부 녘 자 애 해 끌 끼 치 지 안 는 다 는
점 도 빙 민 에 게는 호 하고 복 유
적 극 총 래 에 탄 암 을 가 만 다 는 절 등 은

의 건투를 빙았고 겸하여 우리에
게 만호의를 보아준 통성부장
이하 다수 경찰관의 호의에 기리
감격하면서 여행목적을 달마
었다 ——————
(사진=백구산록의 일련기자대)

(輕機關銃)이 예열포개 중기판
중(重機關銃)하 개 소총은 한사
람아페한자루 권총(拳銃)은 세
사람에 두자루의 비례는 되어 우
성무기가 양적으로 매우 늘어서
며 탄약(彈藥) 쓰는 품이 몹시 풍
족해진 것 봉오라 륙히 주목을 그
는 것은 경기 판종이 유명한 체
코 제풀이 것 탄약이 소리세풀
이것들이로 보아 무기 광급의 후
방판계여부가 하증니 궁금해진
다
북색은 지휘자와 하사 솔의 구
별이 업시 전부가 다 국방색의 세
복으로 투입되었고 여자에 한해
서는 국방색의 상의(上衣)에 검
정색의 치마를 두르고 활동에 편
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들은 모두가 젊은 청년 중이었고
다한다

일상생활은 어떠하게 하는가?
여기에 대답할 만한 자료는 구
비하지 않았습니까? 요사이 대안에
주민들

A vertical black and white photograph showing a dense, dark forest or thicket of trees and bushes, with a bright, overexposed area at the top.

적이 철아잇고
절루는 역사
라】 전법외에 쓰는 게 엄다한다
금년에 출몰하는 비단에 뜨다가
특색을 찾는다면 선전(宣傳)
이 몹시 들었다는 것인 테 봇드
러 갑자에게 대해서는 청행은 사람에게
는 공산주의 선전하고 중년이상
되는 사람에게는 민족주의 사

상을 고주하는 한편 서계정서를 여
리용하여 말하기를
얼룩이방공협정(日獨伊防共協
定)으로부터 영미불소동맹(英米
佛蘇同盟)에 이르기까지 산중에
서 현대사회와 절연된 그들로
서는 분외의 지식을 여우하는데
는 놀라지 아울수 없다.
한때 등사판에 백히선전빠라도
여러 종류가 산포되었다는데 특히
히 그들 사이에서는 비밀을 외
부에 탈로지 키지 안호려는 놀래
인지는 몰랐나 조선이 이 유향
이상이면서도 상용어를 전부만
주어로하고 있어서 외양으로는 조
선인파 만주인의 구별을 하기 어
렵게 되었다한다 그리고 전투
에는 산악전(山岳戰)이 장기라
하여 요사이에 와서는 특히 조

더욱 알록강과 두만강(乌蘇里江)에서 국경은 흑룡강(黑龍江)으로 이동한 오늘에 남아잇는 유익한 치안의 암(癌)이면서 통성한 북경찰부장(歸井咸北警察部長)이 말과 가치

대소제일선도(對蘇第一線道)로서의 할경북도의 중요성에 비춰어 켜양유의 확보가 진요할 뿐외라 무한정하고 건설되고 발전되어야 할 산업도 (產業道)로서의 특색을 유지시켜 기우하여선 우선 이 비단에 대한 척후의 손을 대지안호면안 된다.

는느낌을 엊느통시에 아직도 만강에 국경경비대가 필요한수 치를 재이식하게된다